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25화)

꿈에 하나님의 귀 수술과 안찰을 받고 폐병이 완치되다

4절: 희생으로 사랑을 이긴 피

- 1) 제주도 훈련병 시절
- 2) 광주 상무대 훈련소에서
- 3)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 4) 일동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5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들인 일곱째 천사

- 1) 두 천사의 생수체험
- 2) 이한 검의 안찰과 환돌 위에 소사
- 3) 은혜 간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
- 4)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이란

2) 이한 검의 안찰과 환돌 위에 소사

(전호에 이어서)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안찰로 배가 너무 아파서 꿈을 꺾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가 아무도 없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였습니다. 6.25전쟁 당시 폭탄 터지는 굉음에 한 쪽 고막이 상하여 잘 들리지 않아 그 후부터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작은 소리를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여 되묻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시계바늘이 짹짹 짹짹 돌아가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시계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꿈에 귀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귀가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갔는데, 이날도 일어나서 평소와 같이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혁대를 꼭 졸라매는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하니 배에 통증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프지!' 하고 풀고 보니, 배에 손자국이 세 군데나 있어 '야!

신기하다. 꿈에 복부 안찰을 받았는데 실제로 시커먼 자국이 나 있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바람을 쏘이면서 예배 보러가는 데 평소와 달리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상쾌하고 호호도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 군의관에게 부탁하여 가슴 사진을 찍어보니 뚫렸던 폐가 아물어 완치된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폐결핵이 갑자기 낫게 되었는지 묻기에, 꿈에 박태선 장로로부터 안찰을 받고 난 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 안찰을 받은 그날 새벽예배를 보고 돌아와서 군부대에 출근하여 논산훈련소 독도법 교관으로서 하루에 300여 명씩 교육을 시키고 귀가할 때 요즘에 부산 삼거리로 지날 즈음에 근처 전도관에서 손뼉을 치고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전도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꿈꾼 것을 이야기하니, 교인들이 소사 신앙공동체 마을(신양촌)로 가서 다섯째 천사를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사 감람산 동편 기슭에 신자들만 모여 자급자족하는 신앙공동체마을을 조성하고자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소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

일곱째 천사는 '소사'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그가 일곱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돌 하나를 받았는데, 그 환돌 위에 '素砂'라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면서 '소사(素砂)'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산 삼거리 전도관 식구들과 함께한 기념 사진(맨 위의 우측에서 네 번째 조희성님)

좀 더 자랐을 때에는 부천에 소사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연이 닿아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섯째 천사를 만나러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배 안찰로 병고침을 받은 이유보다 소사에서 역사한다는 것에 더 관심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지내다가 막상 토요일 아침이 되니, 금요일까지 멀쩡했던 배가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은 아무 데도 못하고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일이 다 가고 토요일이 되니 또 배가 몹시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하던 배가 토요일만 되면 아파오다니, 이젠 필시 다섯째 천사 박태선 장로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장난임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마귀를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소사에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짐짓 꼭 그렇게 하리라는 결심도 하는 동시에 아예 소사에 대한 생각조차

차지운 채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 토요일은 배가 아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웬지, 됐다! 마귀가 속아 넘어갔구나!' 하고 얼른 논산역으로 가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영등포역까지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소사로 향했습니다.

구례나룻 수업을 한데다 나이가 지긋한 안내원이 소사마을을 방문한 일곱째 천사에게 점잖게 묻기를, "장교님은 무슨 일로 여기 왔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박 장로님을 만나 뵈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 지금은 출타중이라 안계시고 조금 있으면 곧 돌아오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안찰해 준 것을 아시는 박 장로님

잠시 후 박 장로가 들어오는데 신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하는 것보다 더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일곱째 천사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던

데 '이건 아무래도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 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이왕 온 김에 만나 보거나 하고 가자' 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안내원이 박 장로에게 "저기 장교님이 장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장교님은 어떻게 오셨어?"하고 박 장로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막상 질문을 받으니 적잖이 당황하여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무심결에, "안찰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안찰은 이미 해 줬는데 뭘 또 안찰을 받으요?"

"저는 장로님께 안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장로는 기가 차다는 듯이, "어, 장교님이... 신학교에 나오신 분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시네. 내가 지난 번에 안찰을 해주고 귀 수술까지 해 줬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내 얼굴이 빨개졌고 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안찰해 준 것을 알고 말씀하니, 박 장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안찰해준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신학대학교에 나온 것까지 알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이르자, 정말



논산 삼거리 전도관 앞에서 (오른쪽에 조희성님)

무섭고 떨려 더 이상 인간 대하듯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곱째 천사가 품고 있을 때, 박 장로가 말하기를, "이왕에 오셨으니까, 장교님이시니까 또 해줘야지. 굉장하니까도 참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박 장로가 다섯째 천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섯째 천사의 안찰(按察)로써 일곱째 천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인 박 장로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일곱째 천사를 낚는 영적 동정녀의 역할을 하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성탄절

경축

참가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김주호 사회자

일당 백의 무궁화관현악단의 연주

보광패션의 요절송과 퍼포먼스

무궁화합창단의 요절송과 퍼포먼스

부산제단담게 처분하게 요절송경을 하다

미산제단담게 웃음과 파워를 보여주다

더위 이기는 힘을 보여준 진혜제단

본부제단 유일한 참가, 6지역의 암송